

어린이용 목록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인식

Librarians' Perception of Kid's Catalog in Korean Public Libraries

노지현(Jee-Hyun Rho)*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을 위한
향후 과제 |
| II. 사서가 보는 어린이의 정보행태 | VI. 결 론 |
| III. 사서가 보는 어린이의 목록 이용 | |
| IV. 어린이용 목록에 대한 사서의 요구 | |

초 록

이 연구는 다수의 어린이를 일상적으로 경험해 온 전문가의 관점을 통해 어린이의 목록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 더불어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밝혀내고자 시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들이 관찰한 어린이의 정보탐색 과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둘째, 사서들은 어린이의 목록 이용과 목록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 요인에 대해 어떠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는가? 셋째, 어린이 전용 목록의 개발에 대해 우리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과 관련하여 당면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등이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 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다. 연구의 결과, 사서들은 현행 목록이 어린이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어린이의 정보요구와 탐색행태에 기초한 어린이 전용 목록의 개발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목록, 어린이용 목록, 어린이용 OPAC, 어린이의 정보행태, 어린이의 정보탐색, 편목 정책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the essential data for developing kid's catalog in Korean public libraries. Focus was on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librarians who have provided a service for the children. To the e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ildren's information behavior and search behavior of OPAC from the viewpoint of librarians, and figured out what barriers are confronted when children are looking for reading materials. On the basis of data, discussed in details are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kid's catalogs to improve the information access of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and depth interview with 29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and referred to the existing OPAC for the discussion.

Keywords: Public Library Catalogs, Kid's Catalog, Kids' Catalog, Library Catalogs for Children, Children's OPAC, Information Behavior of Children, Searching Behavior of Children, Cataloging Policy for Children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rho@pusan.ac.kr)

• 접수일: 2011년 11월 24일 • 최종심사일: 2011년 11월 30일 • 최종심사일: 2011년 12월 28일

I. 서론

최근 우리 도서관계의 핵심적 화두 중의 하나는 '어린이'이다. 어린이의 독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의 설립은 물론이고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 설치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최초의 도서관법이 제정된 1963년 이후 제대로 된 시설조차 마련되지 못했던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이 200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¹⁾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마련이나 정책 개발과 같은 학술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용자 편의'(user convenience)를 최고의 원칙으로 꼽고 있는 도서관 목록에서도 어린이 계층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어린이는 지능의 발달에서부터 감각과 지각, 사고 능력에서 성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어린이의 특성은 정보탐색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어린이들이 탐색어 선정에서부터 탐색 결과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²⁾ 어린이의 인지발달과 정보행태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보다 적합한 목록의 개발이 절실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의 경우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하는 '야후! 꾸러기', '쥬니버', '다음 키즈짱'과 같은 키즈 포털(kids portal)을 폭넓게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도서관계에서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은 요원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³⁾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별 특징과 요구, 나아가 도서관 이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보행태적 특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여, 이용자 그룹의 특성과 행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

1) 2010년 현재 전국의 703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어린이실' 또는 '어린이열람실'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총 514개 관이며, 아직 어린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은 107개관에 달하고 있다(무응답 82개관 제외). 이들 어린이실이 開室한 시기를 최초의 도서관법이 제정된 196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에 2개관(0.4%), 1970년대에 13개관(2.5%), 1980년대에 66개관(12.8%), 1990년대에 154개관(30.0%), 그리고 2000년대에 279개관(54.3%)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현재 공공도서관에 설치된 어린이실의 절반 이상은 2000년 이후에 설치된 것이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인용 2011. 7. 4]).

2) 사공복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정보탐색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7), pp.353-381. ; P.A. Moore and A. St. George, "Children as information seekers: the cognitive demands of books and library systems,"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Vol.19(1991), pp.161-168. ; Christine L. Borgman, Snadra G. Hirsh, and Virginia A. Walter, "Children's searching behavior on browsing and keyword online catalogs: The Science Library Catalog Projec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46, No.9(1995), pp.663-684 등.

3) 어린이 목록과 관련한 그간의 연구는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공공도서관 OPAC 디스플레이'에 대해 논의하거나 '어린이의 정보탐색행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어린이 종합목록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이 또한 단위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용 목록에 관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어린이용 목록에 관한 우리 도서관계의 관심은 지엽적이거나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자 하는 관심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미 공공도서관계의 상황은 우리와 커다란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들은 일찌감치 어린이를 공공도서관의 핵심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수요자로 간주하고, 온라인목록이 확산되던 1990년대 초반부터 어린이를 위한 목록의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목록의 개발에 앞서서는 어린이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인 관점에서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선행하였다. 도서관협회 차원에서도 '어린이 자료에 대한 편목법'이나 '어린이용 목록'(kids' catalog)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일선의 도서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끝에, 북미의 공공도서관들은 어린이의 요구와 인지능력, 감성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탐색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다양한 연령이나 상황에 놓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에게 유용한 서지도구, 즉 어린이용 목록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용 목록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인식과 기대'를 다룬 이번 논의는 필자의 이러한 생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첫 번째 결과물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그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어린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목록을 제안해 볼 수도 있으나, 이에 앞서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에 주목하고자 한 이유는 다수의 어린이를 일상적으로 경험해 온 전문가의 관점을 통해 어린이들의 목록 이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 더불어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번 초기 단계의 작업을 통해 필자가 밝혀내고자 시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서들이 관찰한 어린이의 정보탐색 과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둘째, 사서들은 어린이의 목록 이용과 목록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 요인에 대해 어떠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는가? 셋째, 어린이 전용 목록의 개발에 대해 우리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과 관련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등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어린이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용 목록을 제안하기에 앞서, 어린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사서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용 목록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는 다음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수집하였다.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주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목록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 대상 도서관은 의도적 표집 과정을 통해 선별하였는데, 교육청, 지자체, 어린이 전용 도서관 세 그룹에 속하는 도서관들 중에서 지역별 대표 도서관에 해당하는 36개의 도서관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도서

관에 근무하는 어린이실 담당사서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어린이 목록에 대한 사서들의 경험과 견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서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면담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11년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메일 서베이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면담조사는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⁴⁾

II. 사서가 보는 어린이의 정보행태

이용자의 정보행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용자의 인지적(cognitive)이며 감성적(affective)인 측면이 정보탐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용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새로 알고자 하는 지식 간의 격차로부터 정보요구가 발생하며, 기존 지식과의 격차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이 곧 정보탐색 과정이라는 것이다.⁵⁾ 최근에는 이러한 인지적 상태에 더해, 정보탐색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느낌, 생각, 행동 등과 같은 감성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⁶⁾ 정보탐색은 대개 불확실성과 불안감으로부터 시작되며, 정보탐색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혼돈과 좌절, 자신감과 만족감 등과 같은 다양한 감성을 경험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이용자의 인지적 측면과 감성적 상태에 주목하는 주된 이유는 이러한 인지와 감성의 차이가 정보탐색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어린이의 정보행태에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지금부터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정보행태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특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선은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 서비스를 담당해 온 사서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그들이 관찰해 온 어린이의 정보행태적 특징을 ① 어린이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②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주로 누가 탐색하는지, ③ 자료를 탐색할 때 어린이는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④ 자료 탐색 또는 선택의 근거가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사서들이 관찰해 온

4) 설문조사는 36개 공공도서관(교육청 소관 12개관, 지자체 소관 12개관, 어린이 공공도서관 12개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최종적으로 29개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회신율 80.6%). 설문조사에 참여한 도서관은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10개관, 지자체 소관 공공도서관 9개관, 어린이 공공도서관 10개관이었으며, 사서의 신분별로는 정규직 사서 24명(82.8%)과 비정규직 사서 5명(17.2%)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서가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할 경력은 최저 6개월부터 최고 10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설문 참가자들의 평균 경력은 2.8년이었다.

5) Nicholas J. Belkin, "Anomalous states of knowledge as a basis for information retrieval,"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5(May 1980), pp.133-143.

6) Carol C. Kuhlthau, *Seeking meaning: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Norwood, N.J. : Ablex Publishing, 1996). ; 이계환,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의 관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164.

어린이의 이러한 정보행태적 특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어린이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표 1>에 정리해 놓은 것과 같이,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사서들은 어린이의 도서관 이용 목적이 주로 '독서육구의 충족'과 '자료대출 및 반납'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어린이의 자발적이며 일상적인 독서 육구를 충족하거나 단순히 특정 자료의 대출 혹은 반납을 위한 목적에서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학업 관련 과제수행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수업과 관련한 활동을 위해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 중 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기존의 연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⁷⁾

<표 1>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 목적 (복수응답)

	독서육구 충족	자료대출 및 반납	과제수행	도서관 행사 참여	기타	계
빈도(명)	25	16	2	3	0	46
비율(%)	54.3	34.8	4.4	6.5	0	100.0

다음으로, 자료 탐색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질의에 대한 사서들의 답변은 '어린이 자신'이나 '보호자'가 주로 자료를 탐색하고 선택하지만, 어린이보다는 보호자에 의해 자료 탐색 및 선택이 이루어지는 비중이 조금 더 큼을 보여주고 있다(<표 2> 참조).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의 경우 적절한 독서 자료를 선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자료를 탐색하고자 할 때 외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린이의 자료 탐색에 보호자의 개입이 만만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사서들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어린이의 자료 탐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표 2> 자료 탐색 및 선택의 주체

	어린이 자신	보호자	사서	기타	계
빈도(명)	12	16	0	1	29
비율(%)	41.3	55.2	0	3.5	100.0

7) 윤정옥, "맥락에 따르는 정보추구: 대학생의 과제 관련 정보탐색의 내용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 6), pp.199-218. ; 이은주, 이제한, "대학생의 학습활동에 있어 도서관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6), pp.105-126.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탐색하고자 할 때 발견되는 행태적 특징은 무엇일까?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어린이들은 '목록'과 같은 탐색도구를 활용(31.0%)하기보다는 '서가 브라우징'(51.7%)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나 보호자와 같은 인적 정보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어린이들이 서가 브라우징이나 목록 탐색을 시도하는 것보다 더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음을 지적한 사서들도 있었다.

서가 브라우징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사서들은 공통적으로 "명확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가 적으며", "어린이들은 서가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자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목록을 탐색하는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배포한 추천도서목록이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선정한 권장도서목록에 소개된 자료를 찾고자 할 때" 정도로 제한되어 있을 뿐 "어린이 스스로 독서 자료를 선택하기 위한 목적에서 목록(OPAC)을 탐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탐색도구에 대한 선호도나 탐색도구를 사용하는 적극성의 정도에서 성인 이용자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3> 어린이의 자료 탐색 방식

	서가 브라우징	목록 탐색	사서에게 문의	보호자에게 의존	계
빈도(명)	15	9	2	3	29
비율(%)	51.7	31.0	6.9	10.4	100.0

또한, 어린이가 자료를 탐색하는 일차 기준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주제나 장르'(34.6%), '책 제목'(25.0%), '시리즈명'(25.0%)을 이용하여 자료를 탐색하는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성인들이 선호하는 탐색 기준으로 알려진 '저자'나 '출판사'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사서들은 "어린이의 경우 이전의 독서 경험이나 느낌을 중시하고", "흥미롭게 읽었던 자료와 유사한 주제나 장르의 자료를 찾는 경향이 상당히 높으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가진 자료를 특히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만화책', '그림책', '글자가 큼지막한 책' 등과 같은 자료의 유형도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탐색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어린이의 자료 탐색 기준(복수응답)

	주제나 장르	책 제목	시리즈명	자료유형	작가	출판사	기타	계
빈도(명)	18	13	13	5	1	1	1	52
비율(%)	34.6	25.0	25.0	9.6	1.9	1.9	1.9	100.0

지금까지 우리는 사서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어린이들의 정보요구와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의 보편적인 정보행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주로 독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료를 탐색하고자 할 때 불명확한 정보요구와 제한된 경험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자료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탐색도구나 전문가의 지원이 미흡하여, 어린이는 자료 탐색 과정에서 학부모의 도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목록은 어린이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에 지금부터는 어린이의 독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도서관 목록이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나아가 어린이에게 목록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사서가 보는 어린이의 목록 이용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서들은 어린이의 목록 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어린이의 목록 이용에 대한 대략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필자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서들은 “어린이에게 목록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어린이들은 목록이 없더라도 알아서 원하는 자료를 잘 찾고 있으니 별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을 몇 번 반복해서 접하면서, 필자는 어린이에게 정말로 목록이 의미가 없는지 그리고 어린이의 목록 이용에 대한 사서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오랫동안 어린이를 대면하여 온 사서들이 경험적 수준에서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면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부터는 사서들의 경험과 견해를 빌어 ① 어린이의 목록 이용 행태와 ② 목록 이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장애 요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 중 목록을 이용하는 비율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사서들은 역시나 어린이의 목록 이용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표 5>에 제시되어 있듯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0-20%’만이 목록을 이용한다고 답변한 사서들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어린이의 목록 이용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서들의 반응은 목록에 대한 어린이의 낮은 인지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어진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의 목록 이용이 이렇듯 저조한 이유에 대해 “목록의 존재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사서가 29명 중에서 무려 19명(65.6%)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 5〉 어린이의 목록 이용 비율

	0-20%	21-40%	41-60%	61-80%	81-100%
빈도(명)	15	5	5	4	0
비율(%)	51.7	17.2	17.2	13.8	100.0

그렇다면 사서들은 그들이 제공해 온 목록이 어린이의 정보탐색에 얼마나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을까? 조사결과는 뜻밖이었다. 어린이들이 실제 얼마나 목록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앞서의 답변 결과와는 달리, 어린이의 자료 탐색이나 선택에 목록이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사서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목록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에서 3.66).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들이 느끼는 목록의 유용성과 비교해 볼 때 그만큼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5점 척도에서 4.24), 어린이에게 있어서도 목록이 자료 탐색이나 선택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6〉 목록의 유용성 : 어린이 vs. 사서

	어린이		사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3.5%	0	0.0%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3.5%	0	0.0%
보통이다	11	37.9%	7	24.1%
조금 도움이 된다	10	34.4%	8	27.6%
상당히 도움이 된다	6	20.7%	14	48.3%
평균 (5점 척도)	3.66		4.24	

다음으로, 어린이와 사서에게 있어 목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이 조사에 참여한 절대 다수의 사서들은 어린이에게 있어 목록이란 자료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72.4%). 반면, 자신들에게 목록은 이용자에게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여 제공하거나(37.9%) 특정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할 때(27.6%), 혹은 자료의 소장 위치를 확인하거나(24.1%) 다양한 자료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고자 할 때(10.4%) 필요로 하는 서지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어린이에게 있어 목록은 '다른 소스'를 통해 자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후 해당 자료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반해, 사서들에게 목록은 도서관 자료에 대한 탐색도구이자 어린이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서지도구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사서들은 "어린이의 경우 자료를 찾기 위해 목록

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 이에 어린이들이 목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7〉 목록의 의미 : 어린이 vs. 사서

	어린이		사서	
	명	비율(%)	명	비율(%)
독서 자료를 선택/제공하기 위한 도구	4	13.8%	11	37.9%
자료에 대한 내용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	3	10.3%	8	27.6%
자료에 대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	21	72.4%	7	24.1%
다양한 자료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	1	3.5%	3	10.4%
기타	0	0.0%	0	0.0%

어린이의 목록 이용에서 발견되는 장애 요인에 대해 사서들은 〈표 8〉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즉, 목록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린이에게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에서부터 적절한 도움말 기능의 부재,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검색 방식, 검색결과에서 어린이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혹은 너무 많은 정보의 제공 등이 이번 조사에 참여하 사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장애 요인이었다.

〈표 8〉 어린이의 목록 이용시 장애 요인

	용어의 난해함	도움말 기능 부재	검색의 어려움	부적절한 정보	기타	계
빈도(명)	10	8	6	3	2	29
비율(%)	34.5	27.6	20.7	10.3	6.9	100.0

이렇듯 현행 목록은 사서들 사이에서조차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평가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이어진 면담조사를 통해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사서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피상적인 것보다 다음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데 문제가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에 주목해 보자.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야후꾸러기나 쥬니버의 경우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을 관찰해 보면, 글자를 모르는 어린이들도 이것저것 보면서 뭔가를 잘 찾아가요. 그런데 도서관의 목록은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전혀 담고 있지 못해요.”⁸⁾

8) A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와의 면담 : 2011년 8월 25일.

“오히려 목록을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어린이들이 더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어렵고 불만족스러운 경험이 목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⁹⁾

“어린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현행 목록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자료는 ‘재미있는 읽는 거리’나 ‘요즘 친구들이 많이 보는 책’처럼 다소 막연한 것이예요. 이런 자료를 찾는 아이들에게 목록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목록을 이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어린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반영하는 것이 어린이용 목록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¹⁰⁾

사서들이 지적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처럼 어린이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부족하고, 목록에 대한 어린이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느낌이 이후에 목록의 이용을 더욱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목록은 자신의 정보요구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전의 독서 경험이나 흥미 위주의 독서 자료를 원하는 어린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다. 이처럼 현행 목록이 가진 가장 커다란 문제는 어린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내적 요인과 어린이에게 적합한 목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사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사실이 특정 어린이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이라는 데 있다.

이쯤에서 필자는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 요인을 개선하고자 사서들이 그간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조사에 응한 사서들이 소속된 29개 도서관 가운데 무려 19개관(65.6%)에서 편목 업무는 이용자의 특성이나 행태와 상관없이 편목담당사서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장애 요인을 체감하고 있는 사서들과 편목담당사서들 간에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던 흔적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이용자 서비스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우리 사서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나아가 이용자의 특성과 행태에 적합한 정보시스템의 마련에 대한 우리 도서관 현장의 욕구가 절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9) D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와의 전화 면담 : 2011년 8월 29일.

10) C 어린이도서관 사서와의 면담 : 2011년 8월 26일.

IV. 어린이용 목록에 대한 사서의 요구

마지막으로,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대한 사서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목록의 개발에 대해 사서들은 <표 9>와 같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 사서만이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녀는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으로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린이용 목록을 개발하게 될 경우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이 개별 도서관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어린이 전용 목록의 개발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밝힌 사서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 사서들의 경우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부족 등 도서관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표 9> 어린이 전용 목록의 개발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

	매우 부정적	부정적	무관심	긍정적	매우 긍정적	계
빈도(명)	0	1	3	20	5	29
비율(%)	0.0	3.5	10.3	69.0	17.2	100.0

여기서 잠시 어린이 전용 목록의 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사서들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주목해 보자.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어린이들의 경우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의 요구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린이 스스로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계층과 요구에 따른 차별화된 목록의 제공이 결과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화 내지는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도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대한 사서들의 의견이 아무리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이러한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을 과연 누가 담당할 것이냐 하는데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사서들은 한결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도가 되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29명 중 26명). 또한, 비록 일부에 불과하였지만 ‘지역 도서관 간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용 목록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고 보는 사서들도 있었다(29명 중 3명). 반면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있어 개별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서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단위 도서관에는 전무하다는 의식과 우려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¹¹⁾ 이처럼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은 어린이 전용 목록의 개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나, '과도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 시도하기에는 다소 버겁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어린이용 목록을 개발한다면 어떠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서들은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필자는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달라”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서들에게 부탁하였다. 다음의 <표 10>은 이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 놓은 것인데,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사서들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의 사용’을 제1순위로, 그리고 ‘주제별 브라우징 기능의 강화’와 ‘어린이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공동 2순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답변 중에는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목록의 개발’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사서들의 수도 만만치 않아,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있어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0> 어린이 전용 목록의 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요소(2가지)

항목	빈도	비율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의 사용	16	27.6
주제별 브라우징 기능의 강화	14	24.1
쉽고 재미있고 친숙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14	24.1
독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목록 개발	9	15.5
보다 간략화된(필수 항목 위주의) 서지정보 제공	5	8.6
계	58	100.0

평소 어린이의 목록 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사서들은 역설적이게도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이렇듯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기초한 목록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어린이들의 경우 검색창에 무엇을 입력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서 책제목이나 저자 이름 등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의 경우 곧잘 따라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3-4학년 정도까지는 알려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방식이 다소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린이용 목록을 개발한다면 무엇보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¹²⁾

11)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의 수가 일반적으로 1-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이러한 우려와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목록이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보니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자료검색에서 사용하는 ‘표제’, ‘저자’, ‘키워드’라는 용어도 어렵고, 설명 자료를 검색했다하더라도 검색 결과에 제시된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린이용 목록을 개발한다면, 그들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쉽고 단순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재미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¹³⁾

이러한 의견 가운데에는 “어린이들의 정보요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기초한 목록의 개발”을 주장하는 사서들도 있었다. ‘주제별 브라우징 기능의 강화’나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독서목록 개발’을 강조했던 사서들의 의견이 이에 해당하였는데,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목록”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¹⁴⁾ 필자의 면담조사 녹취록에 남아 있는 다음의 내용에는 이러한 생각이 그대로 담겨있다.

“어린이들의 평소 질문을 종합해 보면 ‘모험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친구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 등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을 자주 접해본 사서들이라면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자료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기왕 어린이 목록을 만든다면,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관심과 요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¹⁵⁾

이에 더해, ‘어린이의 상황이나 요구에 기초한 독서 목록의 개발’이 궁극적으로는 사서들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사서들 사이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었다.

“사서는 무엇보다 자료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어떠한 자료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 막연할 때가 많아요. 평소 관심 있는 사서들끼리 어린이 자료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12) E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와의 면담 : 2011년 8월 25일.

13) D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와의 전화 면담 : 2011년 8월 29일.

14) 가령, 이번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36개 도서관 가운데 ‘주제별 검색’을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은 6개관에 불과하였다(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12개관 중에서는 ‘서울정독도서관’만이 주제별 검색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중에서 주제별 검색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전무하였다. 또한, 어린이도서관 중에서는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서초구립어린이도서관’, ‘부천문화재단 어린이도서관’, ‘인표어린이도서관’ 등 5개관에서 주제별 검색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제별 검색은 KDC 분류표에 근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주제접근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 36개 도서관 가운데 7개관을 제외한 도서관에서 ‘사서추천도서’, ‘이달의 추천도서’, ‘도서관 추천도서’ 등과 같은 추천도서목록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 또한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개발한 목록을 그대로 옮겨 놓았거나 추천도서목록을 무의미하게 열거해 놓은 수준이어서 형식적인 차원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5) A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와의 면담 : 2011년 8월 25일.

이조차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특정 상황이나 요구에 따른 독서 목록이 잘 구비되어 있다면, 사서들이 이용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알아서 찾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요구에 대해 먼저 조사하여 그 결과에 기초해서 좋은 자료를 선별하여 제공한다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전문화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확립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목록이 만들어진다면 어린이나 학부모들에게는 물론이고 사서들에게도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¹⁶⁾

이렇듯 이번 조사를 통해 필자는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대한 사서들의 시각에서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외향적으로 볼 때 “어린이들의 목록 이용이 상당히 저조하며, 따라서 어린이용 목록이 개발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다소 비관적이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사서들의 마음 속 깊이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목록의 개발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V.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을 위한 향후 과제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우리 공공도서관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어린이 자료를 이용하는데 기초적인 도구라 할 수 있는 목록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36개 도서관 중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전 한밭도서관’과 ‘울산 남부도서관’만이 어린이 자료에 대한 목록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어린이실에 소장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목록일 뿐 ‘어린이’를 위한 목록이라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듯 우리 도서관계에서 어린이의 인지수준이나 발달단계를 고려한 목록의 개발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전무하였다고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주된 서비스 대상자가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특성과 행태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목록은 어린이 이용자들에게 철저히 외면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우리보다 앞서 어린이용 목록(kid's catalog)을 개발해 왔던 북미 공공도서관계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조사결과에 기초하되, 어린이의 정보요구에 대처하고 나아가 다양한 자료에 대한 어린이의 효율적인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북미 공공도서관계에서 전개해 온 그간의 노력을 적절히 참조해 가면서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과 관련하여 당면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16) G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와의 면담 : 2011년 9월 10일.

찾아보고자 한다.

비록 사서들의 경험과 육성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었지만,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어린이의 정보요구와 정보탐색행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①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목적은 '막연한 독서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② 독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서관 자료를 탐색할 때 어린이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③ 자료 탐색에서 목록과 같은 탐색도구를 활용하기 보다는 주로 서가 브라우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어린이들의 이러한 보편적인 정보행태는 기존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어린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반드시 참조해야 할 기초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사서들이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정보추구행태, 특히 탐색행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미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앞서 어린이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정보소스의 이용행태는 물론이고 정보탐색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반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어린이에게 일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성인(부모나 친지, 교사, 간호사, 운동코치, 성직자, 사회복지사, 도서관 사서 등)을 통해 어린이의 정보요구와 행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한 것은 물론이고,¹⁷⁾ 어린이의 정보탐색 과정과 그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관찰이나 면접법, 탐색실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¹⁸⁾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과 관련하여 이처럼 어린이의 정보행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용자 집단의 특징과 요구를 파악하고, 그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어린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탐색도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북미 도서관계에서는 어린이의 경우 정보요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을 성인보다 더 자주 경험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정보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의 목록 이용과 관련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① 어린이의 목록 이용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② 어린이의 경우 주로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고자 할 때 제한적인 용도로운 목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목록 이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사서들은 현행 목록이 가진 다양한 한계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가령 ③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전혀 담고 있지 못하며, ④ 어린이의 특성과 행태를 고려할 때 현행 목록의 탐색방법이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점이 사서들에

17) Virginia A. Walter, "The information needs of childre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18(1994), p.111.

18)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연구가 주로 관련 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한 초등학교 고학년생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자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나 취학 전 어린이 또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 집단으로 연구대상을 점차 확대하면서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번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이 목록 탐색에서 경험하는 인지적·정서적 장애가 그들의 지속적인 목록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과제는 현행 목록이 가지고 있는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 요인이 발생하는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 공공도서관계에서도 어린이가 목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지는 장애 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어린이의 인지능력과 감성에 기초한 다양한 유형의 목록을 개발한 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¹⁹⁾ 가령, Borgman 등은 현행 목록이 어린이의 요구나 능력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음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어린이에게 적합한 목록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의 정보요구와 행태에 기초한 각기 다른 네 가지 형태의 실험 모형을 구축한 후 이들 모형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용 목록에서는 정확한 철자입력이나 고급 수준의 탐색능력을 요구하는 방식 보다는 어린이의 관심과 요구, 흥미를 반영한 브라우징 방식이 적합하다는 등의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목록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Borgman 외에도 Solomon, Hirsh, Nessel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들이 몇 년에 걸쳐 진행하였던 연구의 결과는 이후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용 목록을 개발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현재 북미 공공도서관계의 어린이용 목록에서 키워드 검색방식이 아예 사라졌거나 보조적인 탐색기법으로만 제공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어린이용 목록에 대한 우리 사서들의 기대를 조사한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 사서들 사이에서도 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의 사용은 물론이고, ② 쉽고 재미있는 목록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조심스레 제기되었다. 또한 사서들의 요구는, ③ 자료 탐색에서 주제별 브라우징 기능의 제공이나, ④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한 적절한 독서 목록의 제공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로도 표출되고 있었다.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의 요구와 인지능력에 적합한 목록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아가 어린이의 막연한 독서 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도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대한 사서들의 이러한 기대와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세 번째 과제는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들이고 어린이의 정보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 할 수 있다.

19)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Paul Solomon, "Children's Information Retrieval Behavior: A Case Analysis of an OPAC,"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44, Issue 5(June 1993), pp.245-264. ; Christine L. Borgman, Sandra G. Hirsh, and Virginia A. Walter, "Children's searching behavior on browsing and keyword online catalogs: The Science Library Catalog Projec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46, No.9(1995), pp.663-684. ; Sandra, G. Hirsh, "How do children find information on different types of tasks?: children's use of the Science Library Catalog," *Library Trends*, Vol.45, No.4(1997), pp.725-745 등.

다시 북미 공공도서관계의 경험을 참조해 보자.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서 이들은 어린이의 정보행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어린이는 명료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으며”, “마음에 드는 자료에 대한 우연한 발견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어린이가 탐색에 사용하는 단어의 약 50%는 100개에 이르는 간단한 토픽”이라는 등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어린이용 목록을 구축한 것이다.²⁰⁾ 기존에 저자, 표제, 주제어를 중심으로 하는 키워드 탐색보다 브라우징 방식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브라우징 탐색에서도 논리적인 주제구분보다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일상적 관심이나 감성에 무게를 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나아가, 어린이용 목록에서는 문자 대신 적절한 그림이나 그래픽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다.²¹⁾

목록 탐색방식에서의 이러한 차별화에 더해, 목록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tool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는데, 학년별 또는 연령별 추천자료나 읽기능력별 추천자료, 교과과정별 추천자료, 장르별 추천자료, 주제별 추천자료, 문학상 수상작 추천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가 목록을 통해 다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도록 하였다.²²⁾ 목록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자관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그에 적합한 목록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 목록은 단순히 도서관 자료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어린이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거나 다양한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지도구이자 탐색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미약하게나마 이러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테마별 추천자료 목록’, ‘연령별 권장도서 목록’, ‘상황별 도서목록’ 등은 물론이고, 지역 이용자들의 독서 성향을 분석한 ‘특화 도서목록’ 등을 제공하고자

20) Ute Külper and Ursula Schulz, “Bücherschatz: a prototype of a Children’s OPAC,” *Information Services and Use*, Vol.17, No.2/3(1997), p.207. ; Heidi Barry-Rodriguez, “Kid’s Catalog and Kid’s Catalog Web: a review of CARL’s OPACs for Children.” <<http://www.ils.unc.edu/~barrh/opacs.htm>> [cited 2011, 5. 20].

21) 북미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용 목록에서 채택한 브라우징 검색방식은 우리의 ‘주제별 검색’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도서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료탐색을 위해 제시하는 주제는 ‘동물, 유명인물, 역사, 과학, 자연, 지리, 미국, 공휴일, 스포츠, 종교, 실생활, 공상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전래동화, 신화, 문자, 요리’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주제(토픽)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는 주제에 따른 접근방식도 어린이의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2단계 계층으로만 구현되어 있다. 이처럼 북미 공공도서관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용 목록은 “간단하고(simple)”, “직관적이며(intuitive)”, “어린이의 흥미를 끄는 재미있는(playful)” 목록을 지향하고 있다.

22) 북미 공공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kids’ library’, ‘for kids’, ‘kids’ space’와 같은 어린이 전용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도서관에 따라 다소 상이한데, 숙제 도우미를 비롯하여 어린이 자료에 대한 서평정보, 개별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였거나 권위 있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추천도서목록,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도서관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어린이들에게 유용한 웹사이트 등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가운데 목록은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정보자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수적인 서지도구로서 어린이 서비스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하는 노력이 일부 도서관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 기관에서 개발한 목록을 그대로 소개하거나 추천 자료를 무의미하게 열거해 놓은 경우가 많아 아직은 그 유용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탐색도구로서 목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렇게나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대한 우리 사서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나, 어린이용 목록을 누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우려와 근심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어린이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개별 도서관과 사서들의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과 관련한 마지막 과제는 구체적인 실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북미 공공도서관계의 경험은 분명 우리가 참조할 만하다.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앞서, 북미 공공도서관계는 단위 도서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조할 만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Standardized Cataloging for Children”)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실무적인 논의는 ALA의 ALCTS(Association for Library Collection and Technical Services) 소속 ‘어린이자료 편목위원회’(Cataloging of Children’s Materials Committee)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용 목록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더해,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어린이용 목록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어린이의 정보요구와 탐색행태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시스템 벤더들도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단위 도서관은 어린이용 목록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이용자 서비스에 보다 전념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용 목록에 대한 단위 도서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 도서관 간의 협력이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자관 이용자의 요구와 흥미가 목록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령, 상용 도서관시스템 개발자인 TLC(The Library Corporation)에서 선보인 어린이용 목록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LA 공공도서관과 시카고 공공도서관을 비교해 보면, 어린이의 보편적인 정보요구 외에 지역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목록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LA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도시’, 시카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 ‘여성 예술가’, ‘대통령 관련 자료’ 등과 같이 지역 어린이들의 관심과 요구가 특히 많은 자료에 대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tool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 또는 지역 도서관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고, 단위 도서관에서도 자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는 사실은 어린이용 목록과 관련하여 우리 도서관계에서 분명 참조할 만하다고 하겠다.

VI. 결 론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독서 욕구와 문화 활동,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독서흥미의 개발이나 독서교육에 특히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IFLA에서는 “독서의 즐거움과 지식 발견의 기쁨을 제공하는데”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의 핵심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²³⁾ 『한국도서관기준』 등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흥미의 개발과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공공도서관의 사명과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²⁴⁾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방안은 주로 장서와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어린이 사서의 전문성 개발 등에 치우쳐 있었을 뿐 어린이의 독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 도구로서 ‘도서관 목록’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였다.

성인이나 연구자들에게 있어 도서관 목록이 거대한 서지세계 속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찾기 위한 탐색도구라면, 어린이들에게 있어 도서관 목록은 독서 욕구와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데 필요한 서지도구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도서관이나 성인을 위해 고안된 목록의 내용과 형식을 공공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를 위한 목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서관계에서 생산하는 목록에는 도서관의 정체성이나 이용대상자에 따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필자는 ‘어린이를 위한 목록’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우선 어린이 목록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해 보면, 어린이 목록과 관련하여 우리 도서관계가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와 방향에 대해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다수의 어린이를 가까이에서 접해 온 사서들로서는 어린이의 목록 이용에서 드러나는 특성과 어린이의 목록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축적하여 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철저히 사서들의 경험과 육성에 근거하여, 사서들은 어린이의 목록 이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린이 전용 목록의 개발과 관련하여 과연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커다란 수확 중 하나는 그간 어린이 서비스를 담당해 왔던 사서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어린이의 목록 이용 행태에 대해 필자가 ‘어렵듯이’ 인지하고 있었던 문제가 사서들의 경험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어린이용 목록의 개발에 대한 사서들의 요구와 기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 이 연구에 이어 진행될 후

23) IFLA, *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y Services*,

<http://www.ifla.org/VII/s10/.../ChildrensGuidelines.pdf> [cited 2011. 8. 21].

24)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한국도서관기준(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p.4.

속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정보요구와 정보탐색행태, 나아가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도구로서 목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편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어린이를 위한 목록이 전무한 우리 도서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혹은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획일화된 목록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과 행태가 반영된 실행 모델을 만드는데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중성.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의 기본 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8. 6), pp.469-492.
- 김혜주. "어린이 도서관의 검색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1호(2007), pp.169-187.
- 사공복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정보탐색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7. 9), pp.353-381.
- 유재욱. "어린이청소년자료 온라인종합목록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4호(2009), pp.5-15.
- 윤정옥.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어린이용 OPAC 디스플레이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6), pp.317-343.
- 정진수. "어린이 독자의 도서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1호(2011. 2), pp.417-437.
- 정진수. "어린이자료의 접근점 분석: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4호(2009), pp.101-113.
- Barry-Rodriguez, Heidi. "Kid's Catalog and Kid's Catalog Web: a review of CARL's OPACs for Children." <<http://www.ils.unc.edu/~barrh/opacs.htm>> [cited 2011. 5. 20].
- Borgman, Christine L. and Hirsh, Sandra G. and Walter, Virginia A. "Children's searching behavior on browsing and keyword online catalogs: The Science Library Catalog Projec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46, No.9(1995), pp.663-684.
- Cooper, Linda Z. "A case study of information-seeking behavior in 7-year-old children in a semistructured situ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 and Technology*, Vol.53, No.11(2002), pp.904-922.
- Druin, Allison. "What children can teach us: developing digital libraries for children with children." *Library Quarterly*, Vol.75, Issue 1(2005), pp.20-41.
- Fountain, Joanna F. "Guidelines for Standardized Cataloguing for Childre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http://www.ala.org/ala/alctscontent/alctspubsbucket/alctsresources/general/glchil drens cataloging/ccfkch1.htm>>.
- Hirsh, Sandra G. "How do children find information on different type of tasks?: children's use of the Science Library Catalog." *Library Trends*, Vol.45, No.4(Spring 1997), pp.725-745.
- Koehler, Elizabeth. "OPAC evaluation: Chicago public library kid's catalog web." <<http://www.elizabethkoehler.com/resources/OPAC%20Evaluation.pdf>> [cited 2011. 4. 20].
- Külper, Ute and Schulz, Ursula. "Bücherschatz: a prototype of a Children's OPAC." *Information Services and Use*, Vol.17, No.2/3(1997), p.207.
- Moore, P.A. and St. George, A. "Children as information seekers: the cognitive demands of books and library systems."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Vol.19(1991), pp.161-168.
- Nesset, Valerie. "An exploratory study into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grade-three students." *Proceedings of the Canadi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June 2-4, 2005.
- Nesset, Valerie.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grade-thre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oceedings of the 72nd ASIS&T Annual Meeting*, November 6-11, 2000.
- Sandlian, Pam. "Rethinking the rules: the story behind kid's catalog." *School Library Journal*, Vol.41(July 1995), pp.22-25.
- Solomon, Paul. "Children, technology, and instruction: a case stud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using an Online Public Access Catalog(OPAC)." *SLMQ*, Vol.23, No.1(Fall 1994).
- Solomon, Paul. "Children's Information Retrieval Behavior: A Case Analysis of an OPAC."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44, Issue 5(June 1993), pp.245-264.
- Walter, Virginia A. "The information needs of childre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18 (1994), pp.111-129.